



미 증시, 차익실현 물량 등으로 숨고르기 장세

미국 증시 리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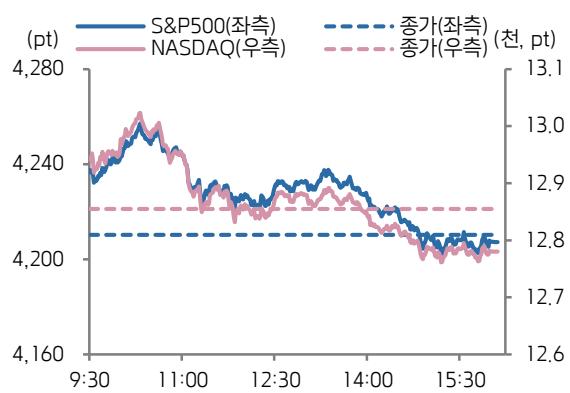
11일(목) 미국 증시는 7월 생산자물가 둔화에 따른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 지속에도 전거래일 단기 급드에 따른 차익실현 물량 출회 속 국제 유가 반등, 9월 FOMC에서의 연준 금리인상 강도를 둘러싼 불확실성 잔존 등으로 혼조세 마감 (다우 +0.08%, S&P500 -0.07%, 나스닥 -0.58%, 러셀 2000 +0.31%).

미국 7월 생산자물가지수 전년동기 대비 9.8%(예상치 10.4%, 전월치 11.3%) 상승하며 예상치 하회, 올해 처음으로 한자릿수 기록. 전월 대비로는 -0.5%(예상치 0.2%, 전월치 1.0%) 하락하며 2년 만에マイ너스를 기록. 에너지(-9.0%) 가격이 큰 폭 하락한 것에 기인하며, 근원 생산자물가지수도 전년 동기 대비 7.6%(예상치 7.7%, 전월치 8.2%) 상승 기록하며 둔화. 한편, 주당 신규실업수당 청구건수는 26만 2000명(예상치 26만 4000명, 전주 24만 8000명)으로 집계되며 예상치 하회했으나,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4주 이동평균으로 전주 대비 4,500명 증가했다는 점이 고용 시장 약화에 대한 우려를 일부 높임.

IEA 원유시장보고서에서 올해 원유 수요를 기존 전망치보다 38 배럴 상향 조정한 하루 210만 배럴 증가로 전망, 여름철 유럽의 수요 상승 및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 부족 등에 기인한다고 밝힘. 반면 OPEC 원유시장보고서에서는 전세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며 수요 전망치 하향, 생산량 전망치는 상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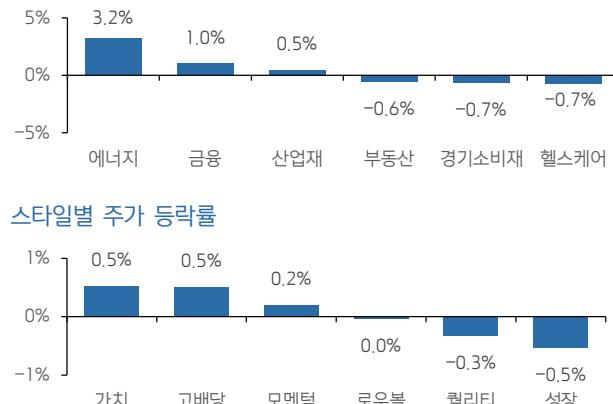
업종별로 에너지(+3.2%), 금융(+1%), 산업재(+0.5%) 업종 상승, 헬스케어(-0.7%), 경기소비재(-0.7%), 부동산(-0.6%) 업종 하락. 유가가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며 에너지 업종이 상세를 보였고, 애플(-0.31%), 마이크로소프트(-0.73%) 등 주요 시총 상위 종목에서 전날 급등에 대한 되돌림이 나타남. 전일 5% 가까이 급등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하락하며 엔비디아(-0.86%), AMD(-0.94%) 등 일부 반도체 업종 매물 출회. 전일 실적을 발표한 디즈니는 2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 발표, 디즈니+의 구독자수 역시 예상치 상회하며 전일에 이어 강세.

S&P500 & NA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S&P500	4,207.27	-0.07%	USD/KRW	1,303.20	-0.55%
NASDAQ	12,779.91	-0.58%	달러 지수	105.12	-0.07%
다우	33,336.67	+0.08%	EUR/USD	1.03	+0.03%
VIX	20.20	+2.33%	USD/CNH	6.74	+0%
러셀 2000	1,975.26	+0.31%	USD/JPY	133.01	-0.01%
필라. 반도체	2,978.70	-0.34%	채권시장		
다우 운송	15,072.54	+0.65%	국고채 3년	3.119	-3.1bp
유럽, ETFs			국고채 10년	3.215	+1.5bp
Eurostoxx50	3,757.05	+0.21%	미국 국채 2년	3.219	+0.4bp
MSCI 전세계 지수	650.71	+0.15%	미국 국채 10년	2.888	+10.7bp
MSCI DM 지수	2,802.23	-0.04%	원자재 시장		
MSCI EM 지수	1,014.29	+1.71%	WTI	94.34	+2.62%
MSCI 한국 ETF	61.32	-0.42%	금	1807.2	-0.3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 시 30 분 기준

 check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0.42%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4%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2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06.3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3 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미국 소비자 물가에 이어 생산자 물가 피크아웃 기대감이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
2. 우호적인 지표 환경에 따른 코스피 2,500 선 안착 가능성
3. MSCI 편입 기대감 확대 종목들의 주가 변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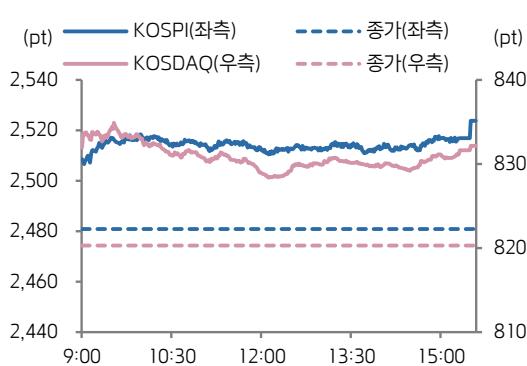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미국의 7월 해드라인 생산자물가(9.8%YoY, 예상 10.4%)는 6월(11.3%)에 비해 상승폭이 둔화됐으며, 2020년 4월 이후 처음으로 전월 대비 감소세(-0.5%, MoM)로 전환하는 등 7월 소비자물가(8.5%, 6월 9.1%)에 이어 미국 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 물론 7월 물가 지표 둔화로 시장과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승리를 했다고 선언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앞으로도 인플레이션 경로 의존 장세에서 상당기간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사실. 그럼에도 “인플레이션 통제 실패 → 공격적 금리인상 강화 → 수요파괴 → 침체 장기화”와 같은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 상정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했다는 것은 증시의 하방 경직성과 복원력을 유지시켜줄 것으로 판단.

또한 한국, 미국 등 주요국 기업들은 그동안 원자재 비용 및 운임 비용 상승 부담 문제에 직면해왔으며, 이를 최근 2~3 개 분기에 걸쳐 가격 전가 등을 통해 수익성 방어를 해왔지만, 향후에는 실물 수요 부진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았었던 상황. 인플레이션이 현시점 이후로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임금 상승 문제는 현재 진행형인 것도 맞음. 다만,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은 유력해졌다는 관점에서, 적어도 임금 제외한 생산 비용 단위 상승 압력 제한으로 수익성 약화 문제가 가중될 여지가 낫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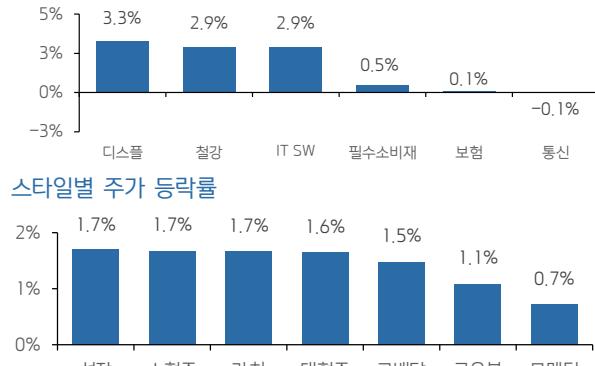
전거래일 코스피는 미국 7월 소비자물가 호재 속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 2,500 선을 회복한채로 마감(2,523.78pt, +1.73%). 금일에도 미국 생산자물가의 예상치 하회 소식, 국내 수입물가 하락(6월 33.6%YoY → 7월 27.9%)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성 문제 완화 기대감 등에 힘입어 2,500 선 안착을 시도할 전망. 다만, 미국에 비해서 상승 탄력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았지만, 주간 기준 4 주 연속 상승에 따른 단기 차익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금일 지수 상단은 제한되는 숨고르기성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또한 금일 새벽 발표된 MSCI 분기 리뷰 상 한한국 지수에 SK 텔레콤의 편출을 제외한 신규 편입 종목이 없었다는 점을 미루어보아, 한동안 편입 비중 확대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군들의 주가 변동성도 경계할 필요.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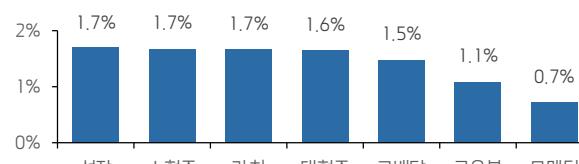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시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징계 됩니다.